나주 한수제, 봄빛으로 물든다… 벚꽃축제 4월 4일 개막

시립합창단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 마련, 오감 만족 봄축제

전남 나주시 금남동이 한수제 일원을 벚꽃과 문화가 어우러진 봄 축제의 장으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나주시 금남동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경현동 한수제 일원에서 '2026년 제12회 한수제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한수제는 금성산 자락을 따라 이어진 벚꽃 터널과 저수지를 둘러싼 벚나무 경관이 어우러진 명소로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수면에 비친 분홍빛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한수제 물레길과 경현길을 따라 걸으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 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물레길은 길이 800m로 기존 임도와 연결된 총연장 1.8km 순환형 산책로이며 경현길은 편도 2.5km 구간의 산책로로 구성돼 있다.

'벚꽃 모아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2회를 맞는 나주의 대표 봄 축제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벚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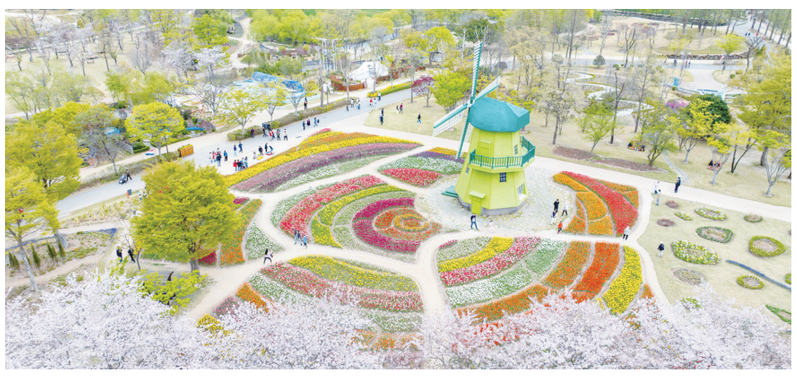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립합창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금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라틴댄스, 소리하모니악단,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요술풍선 만들기, 양모&스트링 아트, 명패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주요 지점에는 포토존을 설치해 봄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행사 기간에 의료 및 교통 지원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미화 한수제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수제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봄의 설렘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방송·셀럽이 찾는 촬영 명소로 주목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최근 방송·뮤직비디오·영화 촬영지로 잇따라 선택되며 '대한민국 대표 로케이션 정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프랑스정원에서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며 감각적인 영상미를 담아냈고, 여행 프로그램 촬영에서는 봄꽃이 만개한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순천의 봄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정원에서는 사극 영화 촬영이 이뤄지며 전통미와 자연미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처럼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영상 콘텐츠가 선택하는 '스토리형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전통정원까지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갖춘 국가정원은 하나의 장소 안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와 시대를 연출할 수 있어 방송·영화·뮤직비디오 제작진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절마다 변화하는 꽃과 자연경관은 별도의 연출 없이도 완성도 높은 장면을 구현할 수 있어, 최근 콘텐츠 제작 트렌드인 '자연 기반 로케이션'과도 맞물리며 촬영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과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곳"이라며 "방송과 영화, K-콘텐츠와 결합해 정원의 가치를 확장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치유와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서, 최근에는 '정원치유'와 '가든노믹스'를 기반으로 관광·경제·문화가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남 곡성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 16시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해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성군, 2026년 자원봉사단체 활동보조금 지원 15개 단체 선정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기반 강화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자원봉사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성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인 이상철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해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우수 프로그램 2개, ▲직능·기능 분야 2개, ▲전문 자원봉사단 11개 등 총 3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자율공부방을 포함한 15개 자원봉사단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성격과 활동 역량을 고려해 활동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철 부군수는 "참여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활동보조금을 지원해 봉사의 질을 높이고, 함께 나누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블루재능봉사단과 남도사랑봉사단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선정되는 등 자원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 벚꽃길 따라 펼쳐지는 광양의 봄 미식 여행

섬진강 벚꽃길 '재첩·벚굴'… 강과 바다가 차린 계절의 한 상

광양의 봄이 꽃을 넘어 미식으로 깊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서천꽃길과 광양불고기, 섬진강 벚꽃길과 재첩국·벚굴이 어우러지며 광양이 봄철 미식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읍 서천꽃길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며 봄의 절정을 알린다. 벚꽃 터널 곳곳에는 벤치와 정자가 놓여 있어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다.

꽃길 건너편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는 숯불에 구워내 불향이 깊게 스민 광양불고기의 풍미를 가까이에서 맛볼 수 있다. 광양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를 백운산에서 생산되는 참숯에 구워내는 고유의 방식으로, 담백한 양념과 어우러져 깊은 감칠맛을 낸다.

인근에는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등 역사·문화·예술 공간이 자리해 봄날의 여정을 이어가기 좋다.

섬진강권에서는 또 다른 봄 풍경이 펼쳐진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 일대의 벚꽃은 강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룬다.

포구를 따라 형성된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에서는 섬진강 맑은 물이 길러낸 재첩국과 재첩회, 벚굴을 맛볼 수 있다. 재첩은 유네스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방식인 '손틀어업'으로 채취돼 그 맛과 함께 문화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벚꽃이 필 무렵 제맛이 오르는 벚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인근에는 윤동주의 유고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과 별빛나길, 배알도 섬정원, 진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등이 있어 강을 따라 머무는 여정에 깊이를 더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의 봄은 꽃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광양불고기부터 섬진강의 재첩과 벚굴까지 자연이 길러낸 식재료와 전통이 어우러진 미식으로 이어진다"며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이 시기에 광양을 찾아 봄의 풍경과 먹거리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화순군, 식목일 맞아 밀원숲 조성 나서

한천면 오음리 공유림서 쉬나무 2,000그루 식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월 27일 한천면 오음리 공유림에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화순군 의회, 경찰서 · 소방서 등 유관단체 직원, 임업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공유림 1.5ha에 밀원나무인 쉬나무 2,000그루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병해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꿀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2년부터 꿀벌특화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캠페인도 추진했으며,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로 키울 수 있는 대추·단감 묘목 400그루를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밀원숲 조성은 꿀벌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확보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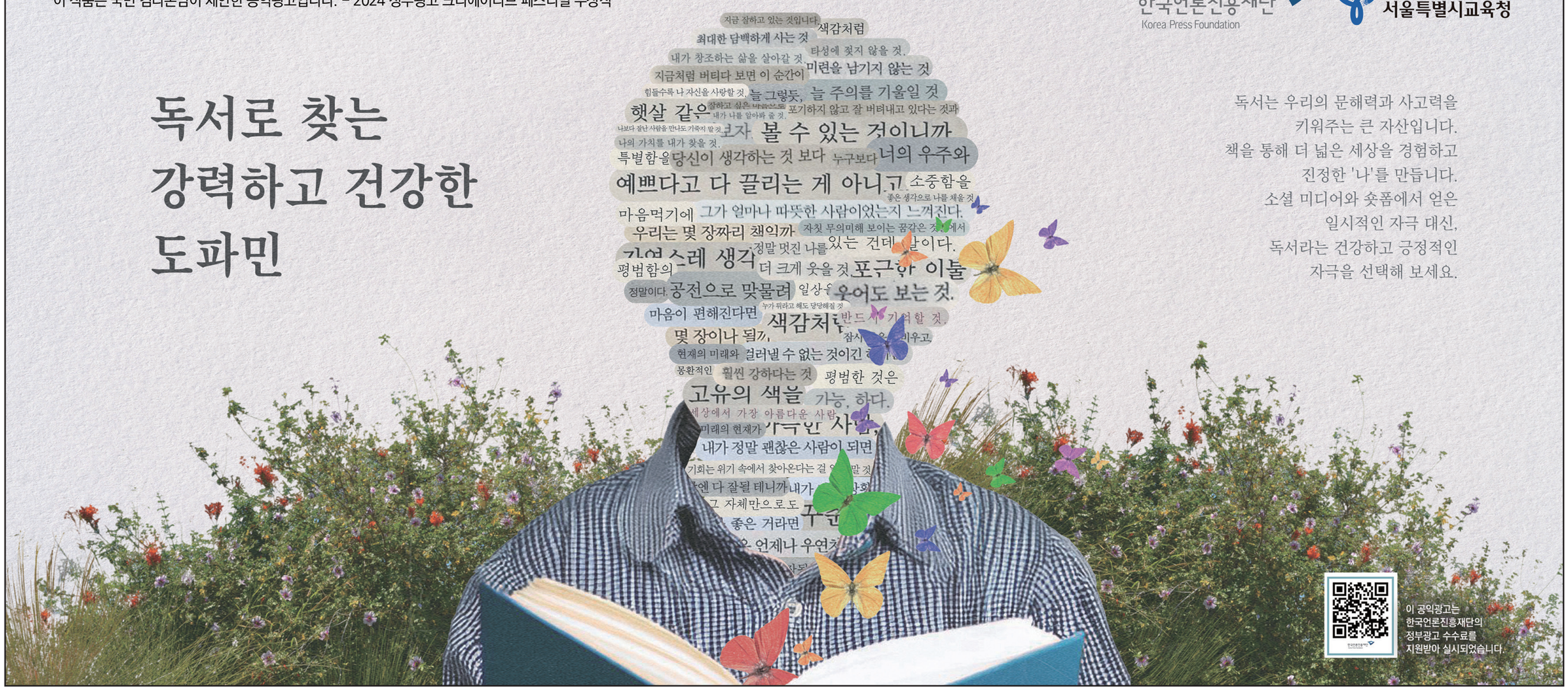
이어 "식목일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